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여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강연회 -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의 예수, 그는 신화적 인물인가 (II)

- 역사적 예수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중심으로 -

IV. 창작된 소설이 아니라 영감 된 증언으로서의 복음서

① 루낭(Ernest Renan)은 전형적인 역사 소설 작가의 입장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들을 이해한다(The Life of Jesus, 1935), 종교적 문학 작품으로 자기만의 제 5 복음서를 썼다. 예수의 생애를 허구화하는 작업은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려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나사렛 예수'를 더욱 허구적이고 비역사적 인물로 만드는 창작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② 오스틴(Mary Austin), The Man Jesus(1915)/ 옥슨햄(John Oxenham, God's Candle(1929)/ 깁슨(Mel Gibson), Passion of Christ/ 카잔차키스, Last Temptation of Christ, 2008년도/ 스톡홀름의 세계신약 학회(Snts)에서 다뤄진 주제중 하나이다.

③ 복음서에 나타난 증언은 허구적, 허구화한 소설 또는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사람들의 증언이다.

V. 성령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역사적 예수'와 '케리그마의 그리스도'

① 슈바이처(A.Schweitzer)의 The Quest of the H. J에서의 진젠도르프(Zinzendorf)와 Martin Kähler(1835-1912)의 연구가 누락되어 있다. 슈레터(Adolf Schlatter)는 각주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근본 의도는 분명치 않으나 추측컨대 켈러(M. Käler)의 Kerygma의 그리스도가 Schweitzer의 예수전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취한 역사비평학적 방법과 방법론적으로 불일치 했기 때문이다.

② 켈러(M. Käler)는 "소위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를 출판하여 19c 역사 비평학적 연구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다. 또한 '신화적 예수'도 거부하였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소위(so called) 역사적 예수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연구는 불가능하며 그 시도 역시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③ 신약 성경 해석의 중심 범주로서 Kerygma라는 단어를 Käher는 최초로 사용했다.

④ 역사를 Historie(or historisch)와 Geschichte(or geschichtlich)로 구분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그는 신약성경을 신앙 안에서 증언하고 고백된 문서로 보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에게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8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그가 생각한 신앙이란 학문에 의한 신앙이 아니고 축자적으로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성경권위에 의한 신앙도 아니고 교회의 교리나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칭의(稱義)의 신앙이다. 이러한 칭의의 신앙을 신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절대적 필요조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1)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2) 참된 하나님 인식의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전제인 신앙은 성령의 증언에 의해서 형성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현재화 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간 마음속에 내재하여 구원을 현실화 한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파악한 그리스도의 실재는 현대의 역사비평학적 역사적 예수와는 상충 된다. 켈러는 역사적 예수 연구는 성령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한다.

(4) 성령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화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의 선포, 곧 설교 속에 살아계시다. 성령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선포, Kerygma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신앙적인 체험이 된다.

(5) 따라서 설교 되고 있는 그리스도는 교회에 의해서 고백되고 있는 그리스도이다. 성경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역사적 실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교회라는 조직(내지 구조)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성령과 교회가 있다고 강조한다.

(6) 교회의 그리스도는 성경적 그리스도라고 단언한다. 즉 케리그마의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경험하고 선포한 역사적인 그리스도상 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경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선포, 곧 케리그마에 의해서 중재되지 않고는 살아계신 역사(geschichtlich)의 그리스도로 인식될 수 없다.

(7) 켈러는 단호하게 성경적 그리스도는 사실적인 그리스도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사셨다. 지상의 인물이며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다.

(8)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성경적 그리스도, 곧 케리그마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켈러는 지상의 나사렛 예수와 케리그마의 그리스도 사이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그는 지상의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동일성을 주장한다(막 16:6). 이 동일성은 성령에 의해서 증명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언한 분이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자 신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동일성의 문제는 성령과 신앙의 문제다. 결국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모든 문제가 있다.

VI.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케리그마의 불일치의 극복을 위한 비신화화는 가능한가?

① 볼트만(R. Bultmann, 1884-1976)은 역사적 예수의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1927년 Jesus) 그는 양식비평적 방법을 통해 공관복음서의 양식의 틀을 분석하여 prototype 원형을 가려내려 했으나 원형은 찾지 못하고 그 원형이 변화된 과정을 밝히는 일과 설화들을 산출한 교회의 Sitz im Leben(생의 상황)을 찾아내는 일에 그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공관복음서의 증언은-설화이건 선언 설화이건- 모두 예수에 대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단정했다. 초대 교회 예수의 전승은 설교의 축적이기 때문에 순수 예수의 역사적 전기는 써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면에 계속)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8 사명자 대회 기도의 불기둥 높이 들려

사명자 대회는 24시간 연속기도와 날마다 드러지는 열열이 기도으로 온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타고 또 타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숲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

처럼 서울교회 사명자대회도 지금까지 17년을 이어온 기도의 불기둥 사명자들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온 성도들의 기도의 합창으로 불기둥이 높이 들려 사명을 생명으로 여겨온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지금도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고 있다.

2008 성경암송대회

오늘 교회학교별 예선 / 24일(금) 오후7시 본선 - 장소:602호
범위: 베드로전서 전장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온 2008 성경암송대회가 오늘 교회학교별 예선을 치르게 된다.

이번 성경암송대회는 베드로전서 전장을 범위로 하며 오늘 예선을 통해 선발된 성도들은 24일(금) 오후7시 602호실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

을 하게 된다. 이번 성경암송대회 결과는 다음 주일 순례자에 발표될 예정이며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하고 성경암송 발표도 하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제22기 찬양대양성반 수료 및 제23기 개강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23기-10월26일(주)

지난 9월7일(주)에 개강하여 7주간의 학사일정을 마친 제22기 찬양대양성반이 오늘 수료한다. 찬양대양성반은 우리 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과정으로 7주 동안 찬양대원의 기초소양을 배우게 된다.

이번 22기 과정에서는 20명이 수료를 한다. 한편 23기 찬양대양성반이 10월26일(주)개강하며 강사로는 이영조 집사(음악감독)이 선다.(시간 장소: 주

일 오후1시30분 601호) 내년도 우리교회 각 찬양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중 아직 본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찬양대양성반을 수료하기 바란다. 22기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석조 강윤희 강은경 구영미 권보라 김상복 김종태 민희 서순희 이성화 임영숙 전영돈 정영희 조경호 조미환 주성숙 최경분 최성희 최영철 홍주현 (총 20명)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0월중 성경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성경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기념으로 머그잔 세트를 드린다.

10월중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영어필사: (3교구)원용범 집사
- 10독: (12교구)김경철 장로
- 2독: (8교구)김인식 권사
- 1독: (1교구)곽말순 권사 국산옥 권사 (5교구)이순창 집사 (6교구)김원웅 집사, 김희진 권사, (9교구)전용순 권사(13교구)최금봉 집사

강남노회 장로회 총회 25일(토) 오후5시 - 서울교회

서울강남노회 장로회 총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설교와 성찬식을 집례한다.

초대합니다

유아부 자모회에서 주최하는 작은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아부 아기들의 아빠 엄마들이 모여 플루트,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 여러 악기와 성악으로 10월25일 토요일 오후 5시 유아부실(706호)에서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특별히 유아부 찬양대와 협연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유아부에 등록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많이 오셔서 유아부가 어떤 곳인지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혜선 (유아부 기자)

(1면에 이어서)

② 볼트만(Bultmann)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 기독교는 제자들의 부활 신앙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과 헬라인의 우상숭배 및 신비적 예배와 동양의 신비종교와 Stoic주의 및 영지주의의 깊은 영향 아래서 형성된 혼합된 그리스도사상이다.

③ 1967년에 초대교회의 Kerygma와 역사적 예수라는 논문에서 역사적 예수와 Kerygma에 의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연속성을 찾고, 역사적 예수와 Kerygma의 내용상 일치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Kerygma를 엄격히 구분한다.

④ 그리스도 Kerygma는 역사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화화한 것이라고 한다. 역사적 예수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선포한 반면 그리스도 Kerygma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그리스도 Kerygma는 역사적 예수와 연

속성이 없다.

⑤ 연속성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 Kerygma는 역사적 예수를 전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인물인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첫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지상에 계셨던 나사렛 예수였음을 분명히 선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볼트만(Bultmann)은 "내가 이 동일성을 부인하면 나는 Kerygma의 그리스도를 신화로 옮겨놓게 된다"고 스스로 말했다. 볼트만(Bultmann)은 원시 기독교의 선포, 곧 제자들의 선포는 역사적 예수를 전제하지만 역사적 예수가 Kerygma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적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만들어 놓았다고(행 2:26) 주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⑥ 바울은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을 선포할 뿐 인간 예수를 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울은 예수가 살았었다는 사실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았었다는 사실만 필요했다. 바울은 예수의 나심, 죽음, 부활도

역사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간을 위한 구속 사건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한다.(H. Paret, 바울과 예수/ 바울이 보낸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의 생애를 알고 있었다) ⑦ Bultmann의 말을 빌리면 '예수는 Kerygma로 부활한다'고 한다. 고로 우리가 Kerygma를 통해 얻는 것은 예수의 생애나 인격이 아니고 예수의 교훈과 메시지이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원시 기독교의 Kerygma라고 한다.

⑧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고 그 분이 오셨고, 현재 나를 도우시는데 있다. 우리는 성경 속의 구시대의 우주관 및 세계관들, 신화적 요소들을 비신화화 해야 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실존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NT and Mythologie, 1961) 주장한다.

⑨ 복음서를 공동체의 산물로 보는 볼트만(Bultmann)이 비신화화 작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주 계속)

천국시민양성-도교기도부

당신도 기도의 동역자!

정수길 목사(설교사역도교부 지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끊깁니다. 탯줄의 연합이 끊기자마자 아이는 혼자 호흡합니다. 아이의 심장에 피가 흐르고 호흡이 시작되면 아이가 출생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 출생의 여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도가 없다면 실상은 영적 무호흡증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출생 후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출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호흡이 지속되어야 하듯이 기도생활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생활은 응답받는 기도생활의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시간에 자신들의 필요를 아뢰는 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일의 기도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일관성 있는 동기와 소원과 의향을 검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 계절에 설교사역도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교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셨다면 이번 설교사역도교팀의 세미나를 통해 이 시대 영적 거목으로 쓰임 받으시는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설교사역을 도와드리고, 아울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감미롭게 순종하여 기도로 예배와 설교를 섬기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 제 목 : "설교사역 도교, 그 능력과 은혜의 현장"
- 일 시 : 2008년 10월 22일(수), 오후 1~3시
- 장 소 : 602호
- 강 사 : 이호 목사(주님의 교회, 중보기도학교)

천국시민양성 - 수험생을 위하여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이은옥 권사(교동부 부장)

수능시험이 치뤄지는 11월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동부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기도제목들을 함께 나누며 교사와 후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반복하여 오가는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일 성수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문대학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고3학생들의 출석률이 어느 학년보다 제일 높은 것을 보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저들의 무언의 고백일 것입니다.

지금 저들의 눈에는 대학이 가장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우리 생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입시의 관문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말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사명자 기도 -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주신
빛으로

전정숙 권사(3교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가을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오면 나뭇잎들이 낙엽의 색깔로 채색되듯 우리들의 믿음도 새롭게 채색되어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 열매를 맺듯 복음의 열매가 쌓이게 해주시고 떨어지는 잎새처럼 초라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정과 생명까지도 바치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 보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선교와 구제로 역사하는 교회, 어려운 시기에 길 잃은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 죄악에서 허덕이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참담한 자들을 구원하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활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교회가 사명자대회 5대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씬 없이 간구드리는 50일간의 작정기도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빛으로
온누리에 사랑과 빛을 가꾸어가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도 쉬지 말고
가을 향기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타는 갈증으로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갈던 내가

하늘 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더니

일곱날의 햇살이
계곡 깊은 곳까지 쏟아지는
눈부심이어

발걸음이
담을 넘는 사슴 같아라.

하루의 가장 어두운 저녁에 서서
존재의 마지막 끝만
바라보던 내가

믿음, 감사, 인내를
날줄 씨줄로 엮어
찬양의 웃을 찢더니

오월의 따스한 봄을
부르는 인자하심이
흡족한 비, 풍성한 열매로
함박웃음을 짓게 하니

구름 위로 비상하는
새 같아라.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재미 성악가 테너 양재혁 선생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양 선생은 서울대 음대와 Indiana University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Washington World Mission Choir의 음악감독, Washington DC 주미 한국대사관 문화원의 음악감독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워싱턴 지구 순교회 수석지휘자로 수고하고 있다.

2008 가을 10회 가을 정오 음악회(10월21일)

Chamber Music Concerts with Organ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이번 주 화요일정오음악회는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로 열린다. 첼로- 김시내 선생(한세대학교 강사), 오르간- 한지윤 선생(안동교회 오르가니스트)이 연주하며. 이날 연주할 곡은 Praeludium in E-Dur(V. Lbeck-1654-1740)의 5곡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회에 참여한다. 22일(수) 기독교교도소 기공식에서 격려사를 한다. 23일(목) 복음동지회를 소집하고, 칼빈탄생500주년, 로잔지도자대회를 위한 기자회견,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 이사: 10교구 백정순 권사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아파트 105동 3301호

■ 영전: 3교구 최임수 집사 '복인음료' 감사(군인공제회 계열사) T.031-994-0304

■ 주간식당 봉사: 모세선교회(10.19) 도르가전도회(10.26)

■ 금주의 식사 : 백수남 집사 김영희 권사 가정 하복성 성도 주환인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지난주 서울교회는...



706 특공연대 진중세례식이 10월15일(수) 오후7시 우리교회 비전 2020운동본부(위원장'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경기도 연천군 소재 새생명 교회에서 가졌다.

교회설립 17주년 기념 축시 및 산문 공모

우리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순례자 편집국에서는 여러분의 시와 산문을 공모합니다. 많은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 원고마감: 11월 9일(주)
- 발표: 11월 23일(주)
- 제출: 사무국 (유태서 집사)

- 순례자 편집국 -

호산나대학

유지성(3학년, 사무자동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

호산나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지성 학생이 2008년 9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시험에 필기, 실시시험 모두 합격했다.

비장애인에게는 합격이 쉬울 수 있으나 지적, 발달장애인에게는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합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자격증 취득은 2007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을 쪼개어 공부한 노력한 결과이고 다음 시험을 준비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유지성군은 앞으로 워드프로세서 1급 시험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함께 졸업 후 취업해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성SDS 임직원 호산나학교 자원봉사 실시

지난 10월 15일(수) 삼성 SDS 사회봉사단 20명이 호산나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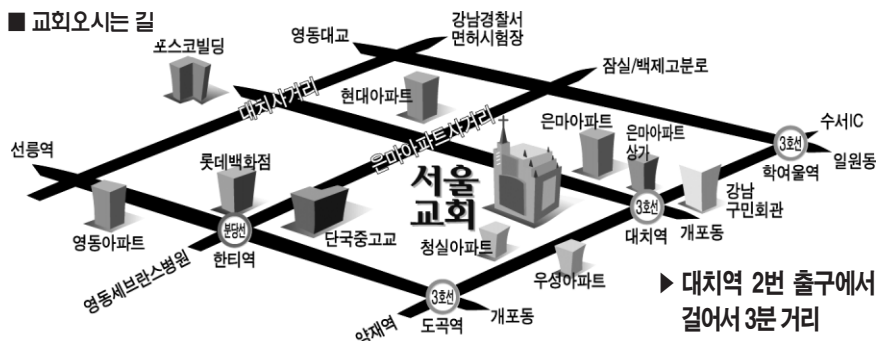
삼성 SDS 사회봉사단은 이날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V 한 대를 기증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8 사명자대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2.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3.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